

국가의 위기 앞에 기도하라

국가적 차원에서 날을 정해 기도하는 것은 그 국가의 근본 정체성과 태도에 매우 중요한 의의가 있다. 그것은 왕이나 정부가 그 국가의 주권자가 아니라, 그 어떤 권력보다도 “위에 계신(롬13:1)” 창조주 하나님이 국가의 주권자이심을 인정하고 선포하는 것이다. 국가의 위기 앞에 온 국민이 함께 기도하여 위기를 극복한 사례들을 살펴본다.

덴마크, ‘위대한 기도의 날’ 폐지 반대 시위

종교개혁 이전에 덴마크 국민은 일주일 가운데 하루를 공휴일로 정해 금식하고 평화를 위해 기도했다. 이를 ‘작은 기도의 날’이라고 불렀는데 지역마다 요일이 다양했다. 도시에서는 주초나 주말에, 시골에서는 수요일마다 쉬면서 예배를 드렸다. 하지만 종교개혁과 함께 모든 기도일이 사라졌다가 1686년에 ‘대기도일’로 부활했다. 당시 덴마크 왕이었던 크리스티안 5세가 ‘작은 기도의 날’을 통합해 부활절 뒤 네 번째 금요일을 ‘위대한 기도의 날’로 명명하고 법정 공휴일로 지정한 것이다. 이후 덴마크에서는 주말을 낀 대기도일 연휴가 전통처럼 이어져 왔다. 덴마크 국민은 기도일 전날 저녁에 전통 빵인 밀빵만 먹고 다음 날은 금식한다. 기도일 당일에는 집에서 지내다가 해가 지면 밖으로 나가 두 팔을 벌리고 기도를 한다. 330년 가까이 기념해 온 기도의 날, 정부는 국민들이 교회 예배에 참석하고 기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전날 저녁 6시에 모든 상점과 술집이 문을 닫도록 했다.

하지만 2022년 12월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생하면서 국방비 증액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기도의 날을 폐지할 것을 제안했다. 이 조치에 시민 5만여 명은 국회의사당 앞에 모여 시위를 열었다. 한 참석자는 “기도의 날은 우리나라의 훌륭한

전통으로 계속해서 이날을 지켜야 한다”고 외쳤다.

미국, 5월 첫째 주 목요일 국가 기도의 날

위기가 닥칠 때마다 미국의 지도자들은 국민에게 국가를 위해 기도하라고 부탁했다. ‘국가 기도의 날’ 첫 역사는 미 건국 이전 1775년으로 올라가 독립운동을 시작하며 “공적인 굴욕과 금식과 기도의 날”을 발표했다. 1798년 존 아담스 대통령은 프랑스와의 전쟁 가운데 있는 나라를 위해 전 국민이 하루를 정해 금식과 기도를 하자고 제안한 것이 시작이다.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남북전쟁 후 황폐화된 나라의 회복을 위해 1863년 4월 30일을 모든 미국인이 나라를 위해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는 날로 정했다. 해리 트루먼 대통령은 1952년 국가 기도의 날을 연방 정부의 공식기념일로 정했고 1988년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은 매년 5월 첫째 주 목요일을 국가 기도의 날로 확정했다.

국가 기도의 날은 모든 종교의 미국인들이 국가를 위해 기도하는 날이지만 실제로는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이 중심이 되어 지켜지고 있다. 이 국가 기도의 날은 무신론자들에 의해 소송을 당해 2010년 위헌 판결을 받기도 했지만 2011년 항소법원이 이를 뒤집으며 적극적으로 부활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합법적으로 국가 기도의 날을 지키고 있다.

영국, 기도의 위력을 경험

조지 5세는 제1차 세계대전 종식을 위한 협정이 맺어지고 10일 후 국가기도의 날을 정해 기도했다. 1940년 제2차 세계대전 때 프랑스가 겨우 두 주일 만에 독일군에게 완전히 점령당하고 던커스 반도에 있던 35만 명의 영국군도 독일군의 적극적인 공세로 인해 대단히 위태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전쟁 상황을 주시한 조지 6세는 5월 26일 주일 전 국민에게 국가적인 위기를 알리고 ‘기도의 날’을 선포하였다. 내각 국무위원들과 왕은 웨스트민스터 교회에 참석했고 수많은 그의 신민들은 영국 여러 교회에 참석해서 기도에 마음을 쏟았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적을 베푸셨다. 35만 명의 영국군이 도우버 해협을 건널 때, 도우버 해협은 맑은 날이었으나 독일군이 있는 곳에만 큰 폭풍우가 일어났다. 그래서 독일군은 전투기는 물론 탱크 한 대도 움직일 수 없이 고스란히 영국군이 도망치는 것을 보고만 있어야 했다. 영국군이 도우버 해협을 건널 때는 물결이 잔잔하여 탈출하는 데 전혀 어려움이 없었으며 인명과 물자의 피해 없이 영국으로 건너올 수가 있었다. 이 사건 후, 영국에서는 국왕을 비롯한 온 국민이 영국을 위기에서 구해주신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렸다. 1940년 6월 9일 주일은 국가 감사의 날로 지정되었다. 코로나의 위기 극복을 위해 영국인 5만 명 이상이 ‘국가 기도의 날’을 요청하는 청원서에 서명하기도 했다.

美 바이든 대통령 ‘국가 기도의 날’ 선언문

모든 신앙인이 저와 함께 하나님의 지속적인 인도와 자비와 보호를 간구하는 데 동참할 것을 권유합니다. 평화와 번영의 시기에 그리고 투쟁과 분쟁의 시기에 수많은 미국인이 가장 필요할 때 인도를 구하고, 믿음을 강화하고, 정신을 지탱하기 위해 기도합니다. 기도는 모든 언어, 문화, 종교 및 신념 체계에서 다양한 국가의 수많은 사람이 관찰하는 가장 친밀한 생각과 관행으로 구성된 개인 및 공동 행위입니다. 이 ‘국가 기도의 날’에 우리는 깊은 겸손과 희망에 기초한 기도의 심오한 힘을 인식합니다. 기도할 권리는 우리 헌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미국 전통에 확고하게 각인되어 있습니다. 기도가 산을 옮길 수 있다는 믿음의 핵심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다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함께

할 때 할 수 있는 일의 무한한 가능성을 믿는 것보다 미국적인 것은 없습니다. 우리 역사를 통틀어 기도는 도덕적 운동에 힘을 실어주고 민주주의를 강화하려는 노력에 불을 붙였습니다. 그것은 노예 제도를 폐지하고 투표권과 유권자의 접근을 확대하기 위한 투쟁에 깊이 뿌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모두가 평등하게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으며, 평생 동안 존엄과 평등으로 대우받을 자격이 있다는 우리의 건국 신조를 지키도록 우리를 계속 강요합니다. 우리는 기도가 어떻게 미국 생활의 모든 측면에 조용히 영향을 미쳤는지 완전히 알 수 없을 것입니다. 전쟁터에서 군인들에게 위안을 주고, 우주 비행사의 정신을 안정시키고,

사랑하는 사람을 돌보는 의료 전문가의 치유의 손길을 인도하고, 신앙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구석구석에 있는 수백만 명의 숭배자들. 우리의 희망과 염원을 이루기 위해 조용히 간구하는 기도가 미국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국가에 대한 사랑과 민주주의에 대한 믿음으로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가 서로를 적으로서가 아니라 이웃으로, 적으로서가 아니라 동료 미국인이자 인간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직 우리가 서로에게서 우리 자신을 볼 때 정의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듯이 “물처럼 흘러내리고” 정의는 “마르지 않는 강”이 되며 미국은 모두를 위한 자유와 정의의 땅으로서의

진정한 약속을 이행할 것입니다. 의회는 수정된 공법 100-307에 따라 매년 5월 첫 번째 목요일을 “국가 기도의 날”로 지정하는 선언문을 발행할 것을 대통령에게 요청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나, 미합중국 대통령인 나 조셉 R. 바이든 주니어는 미국 헌법과 법률에 의해 나에게 부여된 권한에 따라 2023년 5월 4일을 ‘국가 기도의 날’로 선포합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시민들이 자신의 믿음과 양심에 따라 우리의 많은 자유와 축복에 대해 감사할 것을 요청하며, 모든 신앙인이 저와 함께 하나님의 지속적인 인도와 자비와 보호를 간구하는 데 동참할 것을 권유합니다. 이에 대한 증거로, 나는 우리 주의 2023년, 미합중국 독립 247년 5월 3일에 서명합니다.

꼬레아!! 다가오는 환상에 준비되고 있는가

세계의 주도국을 국제 정치에선 이렇게 표현해왔습니다. G2, G8, G20, BRICs(브라질, 러시아, 인디아, 중국), PIIGs(포르투갈, 이탈리아, 아일랜드, 그리스, 스페인, 영국 등 유럽 국가들), Four Tigers(한국, 대만, 싱가포르, 홍콩) 등 여러 나라를 묶어서 다양하게 표현해 왔습니다.

최근에 등장한 G2란 말이 있습니다. 이는 미국과 중국 두 나라를 일컫는 말로 정치 경제적, 군사적 용어로도 사용됩니다. 이른 호혜적 입장에서는 세계 경제의 견인차요, 평화의 균형을 이룬 양강을 언급합니다만 자칫 균형이 깨어질 때 세계는 거대한 패권 충돌의 소용돌이에 빠지게 됩니다. 이미 사무엘 헌팅턴의 경고가 있었지만 ‘문명의 충돌’을 넘어 이데올로기, 패권다툼의 현실로 드러날 조짐이 농후합니다.

1978년 덩샤오핑(鄧小平)이 개혁·개방 정책을 천명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30여 년간 중국경제는 연평균 9.9%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유지해왔습니다. 연 10%의 경제폭발 성장을 거듭하던 중국은 G2를 넘어 G1의 야심도 숨기지 않았었습니다.

등소평의 도광양晦(韜光養晦) ‘자신의 재능을 밖으로 드러내지 않고 인내하면서 때를 기다린다’는 뜻은 어느덧 숨기지 않는 패권의식으로 들떠 있는 중국의 생업을 봅니다. G2의 중국과 G3의 일본 사이에 ‘대한민국’은 같이 있을까요.

우크라이나 전쟁 전에는 서방권을 중심으로 G8으로 세계 질서를 유지해왔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물량주의는 패권야심에 불을 질렀습니다. 동북공정으로 표현되는 한반도에 대한 야심은 1000년의 역사적 뿌리를 가지고 넘볼 기회를 엿보아왔던 것입니다. 국가간의 관계는 매우 냉정합니다. 힘의 논리만이 존재합니다. 핵병, 동맹 등등은 운명적 관계이지 시혜적인 일방적 관계는 존재하지 못합니다.

중국은 고구려 역사를 중국의 소수민족 역사로 편입, 고구려 양식의 성을 중국 한족의 스타일로 리모델링하고 있습니다. 이데올로기가 역사적 사실을 얼마든지 왜곡할 수 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중국의 시진핑이 강력하게 주도하는 일대일로와 신장위구르, 백두산까지 고속철의 건설은 흥심이 함께 있는 인프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미 시간이 좀 지났지만, 2009년경에 GUTS라는 용어가 하나 더 추가되었습니다.

G는 Germany, U는 USA, T는 Turkey, S는 South Korea입니다. 독일, 미국, 터키에 이어 한국(GUTS), 4개의 세계 강대국으로 불립니다. 부르스 존스와 토마스 라이트가 ‘Foreign Policy’에 기고한 논문에서 만들어 낸 용어입니다. Guts라는 영어 단어가 ‘용기’ ‘배짱’ ‘원기’ 등 긍정적 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저자들은 부채를 “여기 놀라운 부흥을 향유 하고 있는 4개의 세계강대국이 있다.” 라고 설명을 달고 있습니다.

국제 정치에서 이른바 ‘world power’라고 불리는 국가는 대단한 강대국이며 그렇게 불리는 것 자체만으로도 명예로운 일입니다. 언제 우리가 국제 정치학자들에 의해 이런 평가로 불릴받은 적이 있었습니까?

한국의 부상은 이미 20여 년 전부터 여러 미래학자, 거시 경제학자, 문명사학자들을 통해서 예견되어져 온 것은 이제 그리 새로운 얘기도 아닙니다.

물론 서서히 지는 전통강국(영국, 프랑스, 이태리, 일본)이 있고, 금융 위기를 통해 국제적인 영향력을 오히려 더 증대시키고 잘나가는 서방 국가들이 있습니다. 독일, 한국, 터키, 미국 등이 바로 그런 나라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국제금융 위기의 진원지인 미국은 역설적이게도 다시 더욱 강력한 국가로 태어나고 있는 중이라고 분석합니다. 2020년대 들어 중국의 전랑외교(늑대처럼 힘을 과시하며 주변국을 압박한다는 뜻)로 대변되는 조공적 관계를 요구하는 접근방식은 아직 때를 분별 못 한 외교적 실책임이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쉽게 미국이 패권을 잃을 만큼 기초기술, 원천기술, 지식적 인프라, 소프트웨어, 달러 패권 등이 약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중국의 경제성장 속도와 지정학적 지위가 둔화 및 약화 되는 것은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에 나타난 현상입니다. 더욱이 그들이 치고 들어온 5G통신 등 반도체 굴기에 미국은 장비수출을 제재함으로써 답보상태에 빠진 것입니다. 이것은 중국의 한계를 보여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진핑식 경제정책은 경제논리보다 계획경제식 전형적 공산당운영방식으로 그들의 역량을 극대화하기엔 너무나 비효율적임이 입증되고 있습니다. 그들의 ‘일’ 속에 패권장악만이 있지, 상호호혜적인 마인드는 매우 적습니다.

선교사 2000여 명을 대량 추방하고, 기독교 탄압으로 중국공산당으로 사회 전영역을 체제 일원화하겠다는 것은 이미 공생의 가치조차 없는 일인독재를 위한 바벨탑적 구조로 모택동의 시형착오를 반복하는 듯 보입니다.

터키의 최근 경제성장률은 중국의 경제성장 비율을 능가할 정도입니다. 터키는 이슬람 민주주의의 모델이 되고 있으며 서방세계와 중동을 연계하는 역할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만 튀르키예는 에르도안의 종신집권을 열어줌으로써 경제적 정책유연성과 개방성에 약점을 갖게 되면서 이런 강력한 지위를 유지할지는 의문시 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한국은 세계에서 7번째로 20-50(일인당 소득 2만불, 인구 5천만) 클럽 멤버가 되었습니다.

20-50 클럽에 들어가는 나라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태리, 일본뿐입니다. 저자들은 한국은 이미 고급 제품의 최종생산국이 되었고 앞으로 2-3년 이내에 일본의 일인당 국민소득을 능가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무엇보다 한국의 엄청난 정치 과잉은 우리에게 매우 유연한 정치적 공생을 가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사실 이 GUTS를 발표했을 때 국제사회는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수긍하기 어려웠던 나라는 S는 South Korea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네 나라 중에서 독일과 미국에 대해서는 의문 없이 받아들였지만, 터키와 한국에 대해서는 항의와 함께 그 근거를 따졌 습니다.

그러자 다음 호에 대한민국이 2040년을 이끌어갈 그 이유를 나리별로 5가지씩 실었습니다.

첫째는 한국인들의 남다른 “국민성”입니다. 한국인들의 남다른 국민성을 ‘총명함’과 ‘부지런함’과 ‘열정’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두 번째는 한국인들의 남다른 “교육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한국의 높은 “기술 수준”을 들었습니다. 과학 기술을 발전시켜 기술 한국, IT 강국이 되었다. 반도체, 가전제품, 조선, 자동차, 제철, 원자력 기술들이 세계 일류를 지켰습니다.

네 번째 이유는 700만이 넘는 한국의 해외동포의 네트워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섯 번째 이유가 놀랍습니다. 한국 개신교의 역할이 세계를 이끄는 정신적, 도덕적 기반을 제공한다고 했습니다.

이 잡지는 신학 잡지가 아니라 외교잡지입니다. 그리고 20여 년이 지난 지금 무서우리만큼 세계는 대한민국 대망론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환경, 반도체, 배터리, 조선, 건설, 가성비군사기술 등등 ‘다시스의 배’는 한반도로 향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나라에는 치열한 경쟁의 벽 때문에 좌절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을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나라라고 울부짖는 세력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눈을 들어 세계의 들판을 보면 세계 최빈국이요 후진국이던 우리나라를 단 두 세대 만에 세계 강대국이요, 선진국의 반열에 올려놓은 대한민국은 무엇인가 보이지 않는 손의 결과임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위기가 기회가 된 나라가 몇이나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성취는 결코 우리만의 자랑이 될 수 없습니다. 산업화를 넘어 민주화는 불가사의를 느끼게 합니다. 수많은 민주적인 실험을 통해 이 땅의 자유지수는 전 세계 언론 및 네트워크 소통의 정상급인 것도 매우 건강한 부담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한민국의 존재는 사명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자유 민주 통일의 과업이 있습니다. 선교의 최대장벽인 북한은 반드시 열린 문이 됩니다. 두 교수가 지적한 교회의 영성 부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쓰시는 이유이고, 한국을 기적의 나라로 만든 사명기도 연결됩니다. 그래서 전방위적인 교회가 공격받는 것도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문제는 교회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먼저 교회지도자들의 각성이 필요합니다. 영성의 최소인 교회가 영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다시 기도의 불굴(불타는 금요일)을 만들어야 합니다. 민족교회의 1/10조를 선교사로 파송하는 선교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합니다. 모든 교회는 예산의 20%를 선교비로 책정하는 위대한 구조변혁이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의 성공지기

박인용 월드와이드교회
담임목사

월드와이드교회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app) 출시



언제 어디서나 월드와이드 교회 박인용목사의 은혜로운 설교와 교회소식을 내 손안에서 받아 볼 수 있는 안드로이드 전용 어플리케이션(app)

*스마트폰에 앱을 설치하는 법

‘안드로이드 마켓’을 클릭>검색에서 ‘월드와이드교회’ 라고 기록 후 검색하여 클릭-> ‘다운로드’ 클릭->동의 및 다운로드를 클릭->설치 완료 후 ‘월드와이드교회’ 아이콘을 클릭하여 설치 상태를 확인

*아이폰(iPhone) 어플리케이션(app) ‘twitter(트위터)’ ‘facebook(페이스북)’ ‘me2day.net(미투데이)’ 와 같은 SNS (Social Network Service) 도 곧 출시!

박인용 목사
주일설교방송 안내



• www.wvch.or.kr

• 극동방송 라디오 FM106.9

청년설교(화, 저녁 10시10분)

대한민국,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을까

1 세계 최저의 출산율 국가

2022년 대한민국 합계출산율은 '0.78'이다. 이는 대한민국 합계출산율 사상 최저치이다. 지난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평균 합계출산율은 1.59명으로 집계됐다. 하위권 국가를 살펴보면 일본 1.33명, 그리스 1.28명, 이탈리아 1.24명이다. 오로지 우리나라만 1명을 넘기지 못하고, 또다시 최하위에 이름을 올렸다. 실제 결혼 적령기 성인 남녀들의 혼인 건수는 매년 줄어 들고 있다. 불안정한 고용 상황과 계층 간 격차 확대, 경제적 부담 증가 등 사



회적 문제들은 미혼 남녀에게 결혼을 기피하게 만들고, 저출생을 심화시키고 있다.

현재의 출산율이 유지될 경우 한국의 생존전망은 매우 어둡다. 어두운 것이 아니라 거의 불가능하다. 즉 한국은 지구상에서 누군가의 침략이 없더라도 스스로 국가로서 생존이 불가능한 상황이 되는 것이다. 기록적인 저출산으로 인해 오늘의 한국은 인구절벽을 넘어 인구소멸·국민멸종의 위기에 봉착해 있다.

그럼에도 저출산 대책은 너무도 비효율

적으로 운용되고 있다. 2006년 2조 원에서 시작하여 현재까지 총 300조 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을 저출산 대책에 투입했는데도 출산율은 계속 급속히 하락해 이제는 1명대 이하의 출산율이라는 유례없는 기록을 나타내고 있다. 저출산 예산을 26조, 37조, 40조, 47조 원이나 쏟아부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출산율은 기록적으로 하락하여 최악의 0명대를 기록하였다. 예산 대비 최악의 비효율성을 드러내고 있는 분야가 출산문제 대처라는 점을 알 수 있다.

2 한국에서 기독교가 비판 받는 이유

한국교회의 위상과 호감이 추락하고 있다. 교회를 부패의 온상으로 매도하고 있으며, 기독교를 바라보는 세상의 시선은 따갑고 매섭다. 희망이어야 할 기독교가 적어도 한국에서는 세상의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 대형교회 목사들의 세습, 배임과 횡령, 성문제 기타 교회의 부도덕함과 이런 다툼은 사람들 비난의 대상이었다.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를 일컫는 또 다른 말은 기독교를 비하한 '개독교'다.

기독교에 대해 부정적인 소식을 다룬 인터넷 기사를 보면 기독교에 반감을 가진 누리꾼들의 댓글이 봇물을 이룬다. 교회당에 한 번도 발을 들여놓은 적이 없는 사람들조차도 기독교는 나쁜 종교, 기독교인들은 나쁜 사람으로 치부한다.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할 때, 교회만큼은 현장예배/성전예배를 강행하며 방역당국과의 마찰을 겪었다. 여기에 8월 15일 광화문 태극기 집회 때 이 집회를 주

도한 세력에 보수 기독교가 동참한 사실이 드러나고, 이 집회를 계기로 2차 대유행이 번지면서 교회는 비난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

지난해 4월 국민일보 조사에 따르면 한국교회 신뢰도가 18%까지 떨어졌다. 최근 한국 리서치 조사에선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49%나 나왔다.

그러나 역사 속 한국교회는 위기에 처할 때마다 민족과 사회와 이웃을 위해 자기희생의 길을 선택하며 개인의 탐

욕과 이기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거룩한 헌신으로 국가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였다. 예수님의 자기 희생적 사랑을 실천하며 사회적 필요를 채워왔다.

한국교회는 수년간 성장주의와 외적인 번영만 추구하며 배타적이고 이기적인 단체로 추락했지만 그럼에도 교회는 희망이다. 하나님이 이 땅에 생명을 사랑하고 평화를 건설하기 위해 일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3 동성혼 합법화 추진을 반대한다

같은 성별을 가진 두 사람이 혼인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편된 뒤 총 15건의 동성부부 혼인신고가 접수되었다. 지난해 3월25일부터 4월5일까지 12건, 4월6일부터 올해 5월10일까지 3건이다. 혼인신고시 양측이 동성일 경우에도 접수할 수 있도록 가족관계등록 전산시스템이 변경되었다. 하지만 접수된 15건 모두 등기 과정에서 불수리 처분됐다. '현행법상 수리할 수 없는 동성 간의 혼인'이라는 사유였다.

2023년 5월 31일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동성결혼 법제화를 포함한 '가족구성원 3법'을 발의했다. 국회에서 '동성결혼 법제화' 관련 법이 발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동성결혼 합법화는 대한민국의 헌법적

질서를 전면으로 부정하는 것일 뿐 아니라, 건강한 사회의 근간인 '혼인제도'와 '가정질서'를 뒤엎는 매우 중차대한 사안이다.

대한민국의 현재와 대법원은 결혼을 "1남1녀 간의 정신적, 육체적 결합"이라고 정의했다. 이와 같은 정의에는 결혼이 가진 핵심적인 요소 3가지가 포함되어 있다. 첫째, '성별의 구분'이다. 결혼이란, 남성과 여성 간에 이뤄지는 것이다. 둘째, '수적인 구분'이다. 결혼이란, 단순히 남성과 여성 간에 이뤄지는 것일 뿐 아니라, 한 남성과 한 여성 간에 이뤄지는 것이다. 셋째, 한 남성과 한 여성 간의 정신적, 육체적 결합이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서로 다른 남성과 여성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한 몸을 이루는 것, 즉 '성적인 결합'이 바로 결혼이다. 따라서 동성결혼이 합법화되면 '건전한 성 윤리'가 붕괴되며, '건강한 가정과 사회'를 약화시킨다.

동성결혼이 합법화 되면 전통적인 결혼의 개념을 재정의해야 한다. 동성애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결혼을 1남1녀의 결합으로 한정하지 않고 열린 개념으로 재정의하게 된다면 굳이 두 사람으로 결혼이 이뤄져야 한다는 기준도 모호해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일부다처제나 일처다부제, 또는 집단결혼과 같은 다양한 형태까지 결혼의 개념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올 수밖에 없다. 2001년 세계에서 가장 먼저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네덜란드에서는 이미 근친결혼과 일부다처제를 인

정하고 있다. 동성결혼의 합법화는 건강한 가족제도의 붕괴로 이어지게 될 것이며, 그것의 최대 피해자는 결국 우리의 자녀들이 될 것이다.

또한 동성결혼 합법화는 '사상과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 동성애를 금지하고 있는 성경책은 비정상적인 책으로 전락하게 되며, 그와 같은 성경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 역시 비정상적인 집단으로 전락하게 된다. 동성애자들의 권리를 위해 그리스도인들의 권리가 억압당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혼인은 단지 당사자들의 결합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법체계가 동성혼을 용인한다는 것은, 입양, 상속, 친족, 연금, 세법 등 민사법 영역 전반에 걸친 후속조치가 수반됨을 의미한다.

대한민국의 미래 석학에게 듣다

세계 최저출산을 국가가 된 한국은 가장 빠른 인구 붕괴를 겪고 있으며, 유명한 인구학자는 저출산이 계속되면 소멸할 것이라는 경고를 하기도 하였다. 앞으로 다가올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하여 세계 석학들이 제시하는 방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요한 록스트롬/ 스웨덴의 환경학자

요한 록스트롬은 독일 포츠담 대학교 지구 과학 교수로, 스웨덴 스톡홀름 대학교에서 글로벌 지속 가능성과 물 순환을 강의하고 있다.

요한 록스트롬 소장은 2010년 8월 TED(TED) 강연에서 “우리는 과학 덕분에 인간이 발전을 위해 지구의 안정성을 훼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첫 번째 세대”라고 말했다. 불행 중 다행으로 인류는 기후위기의 메커니즘을 알게 됐고, 이를 통해 해법도 찾았다. 답은 ‘탄소 중립’, 화석연료에서 벗어나 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산림 조성 등으로 탄소를 흡수해 탄소 순 배출량

“유럽의 기후 위기 정책, 한국 경제에 위기”

을 0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 EU는 2021년 7월 ‘핏포 55(Fit for 55)’라는 입법안 패키지를 내놨다.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보다 55% 줄이기 위한 구체적 방안이다. 특히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에 벗어나고자 재생에너지 확대에 힘을 쏟고 있다. EU의 핏포 55에 포함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는 탄소 배출이 많은 국가에서 생산하거나 수입한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로서, 나라마다 탄소 감축에 기울이는 노력이 다르니 그 차이를 관세로 보정하는 것이다. 적용 대상 품목은 일단 철강·알루미늄·비료·시멘트·전력·수소 등 6개 품목으로, 오는 10월 시범 시행을 거쳐 2026년부터 도입된다. 미국 바이든 정부도 2021년 3월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통상정책 연례보고서를 통해 탄소국경조정제 도입을 시사했다. 기후 위기 대응을 명분 삼아 EU와 미국이 새로운 무역 장벽을 세우고 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기후 위기는 환경 문제를 넘어 경제 문제로 확장된다. 특히 한국은 무역의존도가 매우 높은 국가이기에 이런 통상 환경 변화는 치명적이다. 2019년 기준 우리나라 무역의존도는 63.7%(수출 33.0%, 수입 30.7%)로, G20 국가 중 2위이다. 주요 수출업종은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에 포함된 철강을 비롯해 반도체·자동차·석유화학·디스플레이·기계·석유정제 에너지 다소비 업종이 대부분이다. 재생에너지 사용을 늘리지 않는 것이 단순히 환경정책을 다하지 않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국내 산업의

불이익으로 돌아오게 된다. 요한 록스트롬 소장은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과 한국 기업들이 이러한 변화를 읽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한국 정부는 2030년 온실가스 배출을 2018년보다 40% 줄이겠다고 약속했지만, 그 수단인 재생에너지의 목표 비율을 오히려 낮췄다. 2021년 문재인 정부가 세운 2030년 발전량 목표치의 재생에너지 비율은 30.2%였는데, 지난해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이를 21.6%로 줄였다. EU보다 낮았던 지난 정부의 재생에너지 목표치를 새 정부가 더 낮췄다. 그렇다고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지도 않다. 한국의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8년 기준 세계 11위 수준이다. 국제 민간기구가 발표하는 기후대응지수에서 한국은 온실가스 배출 60개국 중 57위, 최하위권이다.



데이비드 콜먼
옥스퍼드대학교 명예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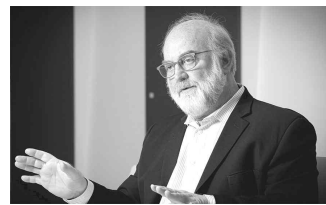
세계적인 인구학 권위자인 콜먼 교수는 2006년 유엔인구포럼에서 인구 소멸로 사라지는 최초의 국가가 한국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때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1.13명이었다. 지금은 지난해 기준 0.78명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1명대 미만은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콜먼 교수는 이런 추세로 가면 한국은 2750년쯤 사라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콜먼교수는 한국의 출산율이 낮은 것은 ‘가부장제’ 문화의 영향이 크다고 봤다. 1970년대 이후 경제는 빠르게 발전했으나 여성에게 주어지는 가사 노동과 돌봄 부담은 변함이 거의 없어

“한국 저출산 계속되면 2750년 국가 소멸 위험”

서 아이 낳길 꺼린다는 것이다. 긴 노동 시간과 고용 불안, 퇴근 후 계속되는 업무 부담도 출산율 저하의 주요 원인이라고 했다. 저출산대책으로 북유럽이나 서유럽 등 출산율이 꾸준히 높은 국가에선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하다. 프랑스를 예로 들면 프랑스에선 1939년부터 저출산 대책을 시행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비용뿐 아니라 교육 비용도 국가가 거의 다 대면서 복지를 탄탄하게 구축했다. 세계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교육열과 업무 강도, 결혼 중심 가족 제도 등이 한국의 급속한 경제 발전과 결속을 끌어냈지만, 이제는 일만 하고 혼외 출산에도 마음을 열어야 인구 소멸에 대처할 수 있다고 한다.

“대한민국, 미래를 선도하는 강국될 것”

토마스 프레이는 구글이 선정한 최고의 미래학자로 유엔미래포럼이사, 미래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석학이다. 그는 IBM에서 15년간 기술자와 디자이너로 일했다. 이후 10여 회사를 연쇄 창업한 뒤 1997년 다빈치 연구소를 세우고 미래학자로 전향했다. 우리는 보통 “현재가 미래를 만든다”고 하지만 그는 거꾸로 “미래가 현재를 만든다”고 주장한다. 미래를 어떻게 바라보고 준비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토마스 프레이는 1800년대는 영국의 시대였고, 1900년대는 미국의 시대, 2000년대는 아시아의 시대가 될 것이라고 강조한다. 특히 대한민국은 세계를 선도할 가능성이 충분한 나라라고



토마스 프레이
미래학자/다빈치 연구소장

평가한다. 인적 자원, 세계에 대한 영향력, 지리적 환경, 문화 등에서 뛰어난 강점들이 많다는 것이다. 한국인 특유의 장점과 새로운 기술을 결합하면 저출산, 저고용, 저성장의 위기를 극복하고 2030년 미래를 선도하는 강국이 될 수 있다고 전망한다. 그는 대한민국의 심각한 문제를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을 꼽으며, 80년 뒤에 한국의 인구가 50% 감소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결혼하지 않는 사회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낮은 출생률은 심각한 문제이며 이민정책을 바꾸든 북한과 통일을 하든 인구감소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세수 결손으로 나라 곳곳에 경고등

부자감세 정책 기조가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하반기 경기가 살아나면서 세수 부족분을 메울 것으로 기대하지만 지난해 하반기부터 추락한 경제 상황은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대규모 세수 결손은 결국 추경이나 국채발행으로 이어져 국가부채를 키울 수밖에 없다. 감세 혜택은 대기업과 집부자들이 받고, 세수 결손에 따른 고통은 온 국민이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렸다.

세수 결손의 원인

경기침체 우려와 자산시장 경색, 각종 감세 정책 등의 영향으로 지난 2019년 이후 4년 만에 '세수결손'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남은 기간 세수를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징수한다고 해도 28조 5000억 원이 모자란다. 세수 결손이 현실화하면 정부 사업들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세수 결손이란 전년도보다 세금이 줄어든 게 아니라 예측보다 세금이 덜 걷혔다는 의미다. 즉 전년도보다 세수가 줄어도 예측만 잘했으면 세수 결손은 생기지 않는다. 초과 세수의 책임이 증세가 아니라 예측 실패라는 것과 마찬가지다.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은 첫째, 대기업을 위한 법인세 감면, 둘째는 다주택자를 위한 부동산세(취득세·양도세) 감면, 셋째는 일부 중산층 소득자를 위한 소득세 감면이다. 하지만 이 셋 가운데 세수에 미치는 규모가 가장 큰 것은 법인세 감면이다.

지난해 12월 예산안과 세법을 처리하면서 여야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각 구간별(4개 구간)로 1%포인트씩 낮췄다. 당초 윤석열 정부는 3%포인트 인하를 내세웠지만, 국회는 협의 과정에서 1%포인트로 조정했다. 다주택 중과세율도 손봤다. 조정대상지역의 다주택자에게는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로 과세하기로 했고,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경우(12억 원이 넘는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도 최고세율을 6.0%에서 5.0%로 낮췄다. 소득세도 낮췄다. 6% 세율을 적용하는 소득세 과표 구간과 15% 세율이 적용하는 과표 구간을 각각 낮춰 세금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이들이 많아졌다. 그렇게 세금을 줄인 결과가 지금 '국세 수입 감소'로 나타나고 있다. 올 1~4월 걸친 국세는 134조 원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걸친 국세보다 33조 9천억 원 적으며, 4월 누계 기준 역대 최대 세수 감소폭이다. 정부가 올해 예산을 편성하며 목표로 한 국세수입액(400조 5천억 원) 가운데 얼마만큼이 걷혔는지를 보여주는 '세수진도율'도 4월까지 33.5%에 그쳤다. 최근 5년 평균 4월 세수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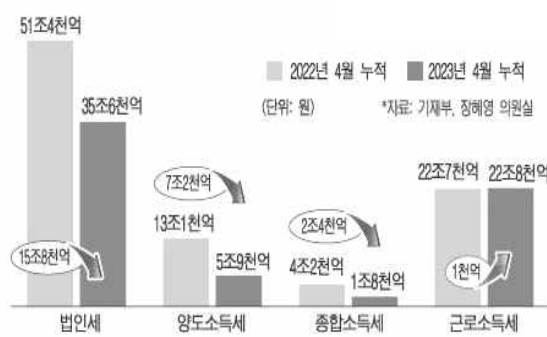
율 37.8%를 밑도는 것이자, 이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0년 이후 최저치다.

4월 한 달 동안에만 지난해 대비 덜 걷힌 법인세가 9조 원이다. 법인세는 3월 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대기업은 4월까지, 중소기업은 5월까지 분납할 수 있어, 지난해 실적 악화에 따른 법인세수 감소는 5월까지 이어질 수 있다.

부동산 거래량이 적어 소득세 수입이 지난해 수입을 밑도는 상황도 이어졌다. 4월 한 달에만 소득세가 지난해 대비 1조 8천억 원 덜 걷혔고, 이에 따라 1~4월 누계 소득세 감소액은 8조 9천억 원으로 커졌다. 8조 9천억 원 가운데 7조 2천억 원이 양도소득세 감소분이다. 이밖에 부가가치세는 4월까지 지난해보다 3조 8천억 원, 유류세 한시 인하 영향으로 교통세도 7천억 원 줄었다.

반면 월급쟁이로부터 원천징수하는 근로소득세는 증가하였다. 세수펄크 사태에 근로자들이 정부재정을 떠받치는 형국이다. 4월까지 근로소득세수는 22조 8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1000억 원 늘었다. 특히 지난해 근로소득세수는 5년 전인 2017년 대비 23조 4000억 원(68.8%) 늘었다. 같은 기간 전체 국세(49.2%)보다 큰 폭으로 증가했다.

세목별 누적세수 비교



세수 펄크가 발생할 때 정부가 자주 쓰는 방법은 추가경정예산 편성이다. 세입 감소분에 맞춰 지출(세출)을 줄이거나 지출을 유지하면서 세수 부족분을 적자 국채발행으로 메꾸는 것이다. 하지만 올해는 추경하지 않는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다. 부족한 세수를 메꾸기 위해 적자 국채를 추가로 발행하는 것은 재정 건전성을 강조해온 윤석열 정부의 철학에 어긋나기 때문에 쉽게 선택할 수 없는 카드다. 정부가 꺼내든 카드는 올해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을 정리해 최대한 다른 사업으로 예산을 전용하는 것이다.

불용이 '만능열쇠'도 아니다. 예산을 잘 때는 재정 지출이 성장률에 기여하는 효과까지 고려해 지출 규모를 결정한다. 강제로 지출을 줄이면 가뜩이나 올해 1%대 수준으로 쪼그라든 국내총생산(GDP) 경제 성장률을 끌어내릴 수 있다.

유류세·승용차 개소세 인하 등 세제지원 종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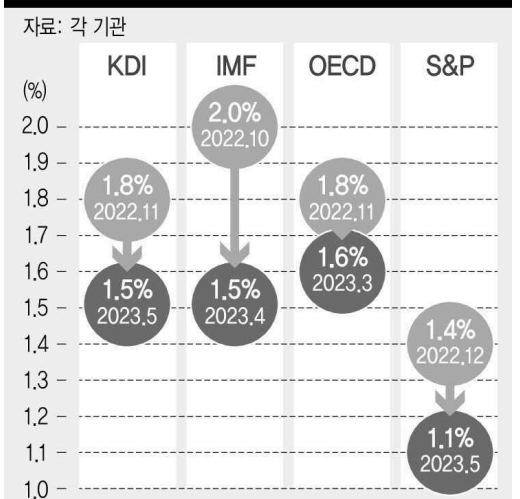
조유의 세수 부족 국면에서 정부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각종 세제지원이 종료된다. 6월 30일부로 자동차 개소세 인하를 종료한다. 개소세 인하는 경기 진작 차원에서 자동차 구입 때 최대 143만 원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세제지원이다. 6개월 단위로 일몰되는 조항이지만 2018년 7월 시행 이후 5년간 계속 연장되면서 한시 지원이라기보다 사실상 상시 지원으로 받아들여던 조치다. 개소세 인하 조치 종료에 따른 세수는 5천억 원 안팎에 그친다는 것이 재정당국의 설명이다. 개소세 인하 종료만으로 세수 회복을 크게 기대할 수는 없다.

8월까지 연장된 유류세 인하 조치는 현 상황에서선 연장의 명분이 사라진 상태다. 휘발유 유류세를 25%, 경유와 LPG 부탄에는 37%를 인하하는 조치를 그대로 이어간 것이다. 유류세 인하 조치로 줄어든 세금(교통·에너지·환경세)은 작년 한 해만 5조 5000억 원에 달한다. 세수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하반기 경기 회복 어려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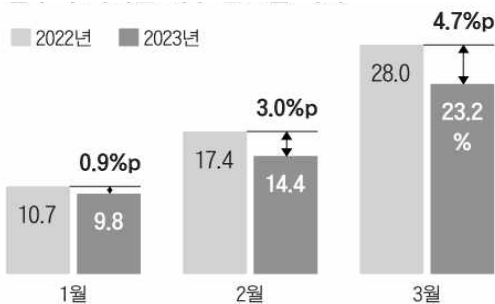
올해 생산·소비·투자 경제활동이 이미 2분기 중반에 들어선 지금 국내의 주요 경제기관마다 우리 경제의 올해 실질 성장률 전망치를 잇따라 하향하고 있다.

한국경제 올해 실질 성장률 전망치 수정 현황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를 떨어뜨리고 있는 주요 배경으로는 지속적인 반도체 경기 부진뿐 아니라 중국 경제 회복 기대의 후퇴가 꼽힌다.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 이후 중국경제가 내수 소비·판매 중심으로 살아나고 있을 뿐 우리 산업·기업의 중간재 제품 수출과 직접 연계되는 생산·투자지출에서는 여전히 회복세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갈수록 커지는 세수 진도율 격차



※세수 진도율이란 1년 세수 목표와 비교할 때 실제 세금이 걷힌 비율

자료=기획재정부

한국어를 할 줄 아십니까

글로벌 문화 속 한류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면서 한국어 학습 열풍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다. 글로벌 언어 학습 애플리케이션인 듀오링고(Duolingo)의 분석 자료에 따르면 한국어는 2022년 언어 학습 앱에서 7번째로 많이 학습된 언어로 나타났다.

세종학당, ‘한국어로 꿈을 이루는 곳’

2007년 처음 문을 연 세종학당은 한국과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이들에게 배움의 전당이다. 2007년 몽골 울란바토르에 처음 개설할 당시, 세종학당은 전 세계 3개국 13개소, 수강생 연간 740명에 불과했다. 15년이 지난 2022년 현재 세종학당은 전 세계 84개국 244개소가 되어 약 19배 늘어났고, 연간 수강생은 2021년 81,476명으로 약 110배 증가했다. 2007년부터 2021년까지 누적 수강생 수는 584,174명에 달한다. 이 같은 증가추세에도 세종학당 한국어 수강 희망자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해 희망자들을 다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

2022년에는 전 세계적인 한류 열풍과 한국과의 교역 증가추세를 반영해 아시아 3개국(방글라데시,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아프리카 2개국(남아프리카공화국, 튀니지), 유럽 2개국(룩셈부르크, 핀란드) 총 7개국에 처음으로 세종학당이 들어섰다.

방글라데시는 매년 근로자 약 2천 명이 한국으로 입국하는 등 취업 수요가 큰 국가며, 사우디아라비아와 쿠웨이트는 중동 지역 내 한류 확산과 더불어 해당 국가 운영기관의 적극적인 의지에 따라 첫 세종학당이 지정된 국가다.

각국의 한국어 열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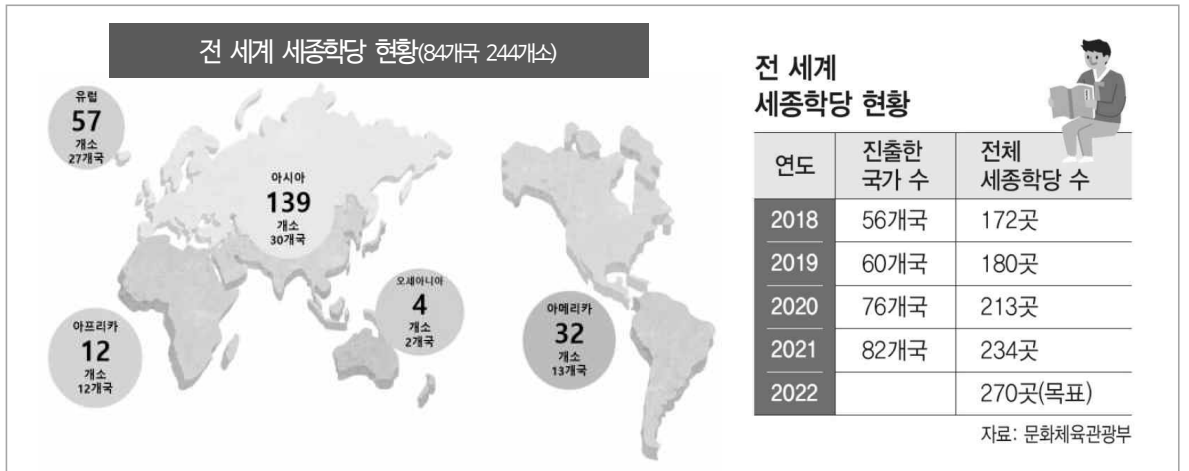
프랑스

BTS(방탄소년단)로 대표되는 한류 콘텐츠의 영향으로 프랑스는 유럽 내에서 한국어반이 가장 많은 곳이다. 2021년을 기준으로 프랑스의 한국어반은 53곳이다. 영국(45곳), 독일(31곳)이 그 뒤를 이었다. 프랑스의 한국어반은 정규수업과 아틀리에(방과후 수업)로 나뉜다.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한국어반 정규수업은 25개 학교에서 진행된다. 정규수업의 경우 프랑스 교육청에서 전액 지원하는 방식이다. 반면 35개교에서 진행되는 아틀리에는 프랑스한국교육원이 맡고 있다. 프랑스 초·중등학교의 한국어반이 늘자 덩달아 대학의 한국 관련 학과도 경쟁률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학을 종합학과로 운영하는 프랑스의 시테대학과 이날코대학의 경우 한국학과와 경쟁률이 20대1에 이른다. 보르도몽테뉴대학의 한국어

프랑스 내 한국어반 운영 현황 (단위: 개, 명)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학교수	학생수	학교수	학생수	학교수	학생수	학교수	학생수	학교수	학생수
초	2	14	2	42	5	204	14	200	4	70
중	3	112	5	209	12	498	16	521	26	666
고	12	505	12	560	25	1082	23	895	30	1064
합계	17	631	19	811	42	1784	53	1616	60	1800

자료:교육부



학과 경쟁률은 35대1 수준이다.

프랑스 내의 한국어반이 늘고 있지만 현지 교사 임용시험에 한국어 과목은 없는 상황이다. 한국어반 교사들의 신분이 시간 강사라는 의미다. 교육부는 지난해부터 보르도몽테뉴대학, 연세대 협업을 통해 사범대학 과정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베트남

베트남에서는 한국어를 잘하면 돈을 잘 번다. 베트남 청년들 사이에선 이런 공식이 이미 자리 잡은 상태다. 한국어의 높은 가치를 가장 먼저 포착한 집단은 대입 수험생 ‘학부모’들이었다. 한국어과 경쟁률이 갈수록 치열해지면서 최근 5년 사이 법대와 의대 입학 수준까지 합격선이 올라갔다. 실제로 한국의 서울대 격인 하노이대의 경우 2018년 40점 만점에 31.37점만 받으면 한국어과에 들어갔으나, 2020년에는 35.38점 이상을 받아야 합격증을 손에 쥌 수 있었다. 하노이 국립외대 역시 같은 기간 28점에서 34.68점까지 커트라인이 수직 상승했다. 폭증하는 수요에 맞춰 한국어과를 개설하는 대학도 늘고 있다. 남부 지역은 호찌민을 중심으로 14개 대학(2019년 기준)에 한국어과가 설치돼 있다. 2012년(7곳)과 비교하면 7년 만에 배나 증가했다. 1992년 한·베트남 수교 이후 하노이대에 처음 생긴 한국어과는 현재 총 32곳, 한국어를 배우는 학부생은 1만 6,000여 명에 달한다.

한국어는 2021년 8월 학기부터 정규 교과과정에 편입되었다. 기존 7년제(6~12학년)에서 10년제(3~12학년)로 수업 시수가 늘어나는 것과 동시에 베트남 수능능력시험 외국어 선택 과목에도 포함되었다.

베트남 한국어 교육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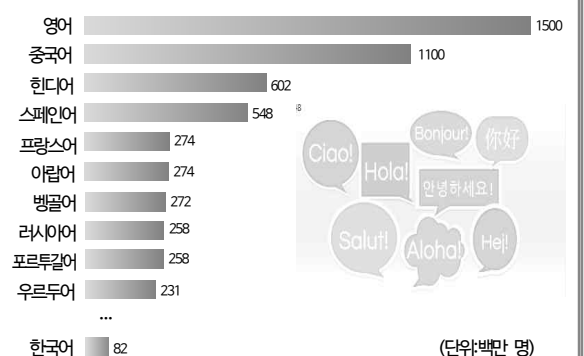
한국어 교육과정 운영 대학	32곳
한국어 전공자	1만6,000여명
중·고교 한국어 선택 학생	1,500여명

※ 2020년 10월 기준/ 자료주베트남 한국대사관

인도

한류의 불모지로 불렸던 인도에서 한국어를 제2외국어 과목으로 채택하였다. 제2외국어 채택과 더불어 최근 한국어 강좌 개설 대학이 늘고 있으며 한국어 능력시험 응시자도 증가하고 있다. 인도의 명문 네루대학교의 한국어학과 정원 서른 명을 뽑는데 무려 10만 명이 몰려 3천3백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한국어학과는 네루대학교에서 경쟁률이 가장 높은 과로 꼽힌다. 지난 1995년 한국어학과를 개설한 네루대는 한류 인기가 높아지면서, 매년 정원보다 많게는 몇천 배 많은 지원자가 몰리고 있다. 인도 전역에 한국어학과가 개설된 대학교는 20곳이 넘는다. 매년 한글날에는 한국 문화 체험 행사를 열어, 다양한 한국 문화를 공유한다.

2022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언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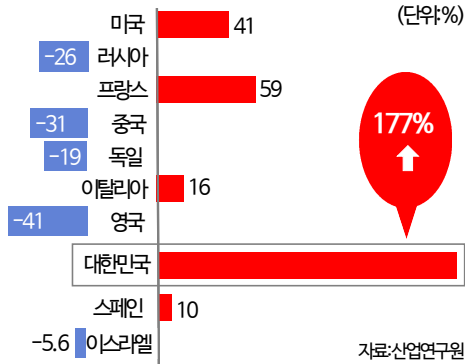
세계 언어에 대한 데이터를 제공하는 온라인 출판물 에스놀로그에 따르면 전 세계에 7,151개의 언어가 있다고 한다. 하지만 전 세계 인구의 절반은 23개 언어만을 구사한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언어는 영어로 약 15억 인구가 사용하고 있다. 이는 원어민과 비원어민 모두를 포함한다. 다음은 중국어(11억 명) 힌디어(6억 명) 스페인어(5.5억 명) 프랑스어(2.7억 명) 순이다. 한국어는 전 세계적으로 8,200만 명이 사용하여 세계 20위를 차지했다.

세계로 뻗어 나가는 K-방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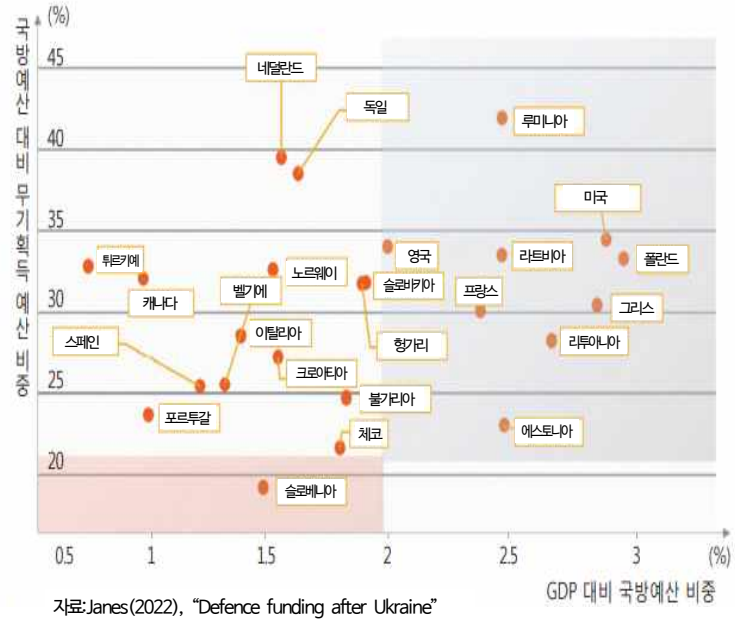
전 세계 군사비 지출 추이



주요국 방산수출 과거 5년 대비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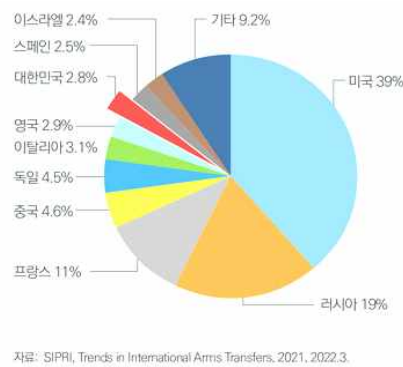
NATO 주요국의 국방예산 대비 무기획득 예산 비중 전망(2025)



한국 방산 수출 추이



세계 방산시장 점유율



우리나라 방산 수출 거점 국가 현황(2023)

권역명	국가명	주요 수출 실적	수출 유망 품목
북미	미국	창정비, 탄약, 철충교역 부품류 등	소형함정, 탄약, 자주포, 공동개발 등(SOSA, RDP-A 추진 중)
아시아·CIS	인도네시아	훈련기, 잠수함 창정비 등	KT-1, 209잠수함, KFX 공동개발 등
	인도	K-9 자주포	군수지원함, K-9 자주포, 전차, 유도무기 등
	필리핀	경공격기, 호위함, 군용차량 등	견인포, 수송함, 중장비 등
오세아니아	호주	장갑차, K-9 자주포	천무, 장갑차(레드백) 등
	튀르키예	훈련기, 차기 전차기술, 전차엔진 등	KT-1, K-9 자주포, 전차엔진 등
중동	UAE	천공-II, 대전차 무기류 등	T-50, 유도무기 성능개량 등
	사우디	전차 기술수출 등	천공-II, 호위함, 비호복합, 유도무기 등
	이라크	훈련기, 비행장, 탄약, 국방통신망 등	KUH 등
유럽	폴란드	K-9 자주포, K-2전차, FA-50 경공격기	장갑차, 유도무기 등
	핀란드	K-9 자주포	K-9 자주포 등
아프리카	이집트	K-9 자주포	탄약 플랜트, K-2 전차, FA-50, 호위함 등
	세네갈	T-50 훈련기	FA-50 등
중남미	콜롬비아	해상용 무기 등	탄약 플랜트, 수상함, FA-50 등
	페루	KT-1 훈련기 등	T-50, 수상함, 209잠수함 등
계	15개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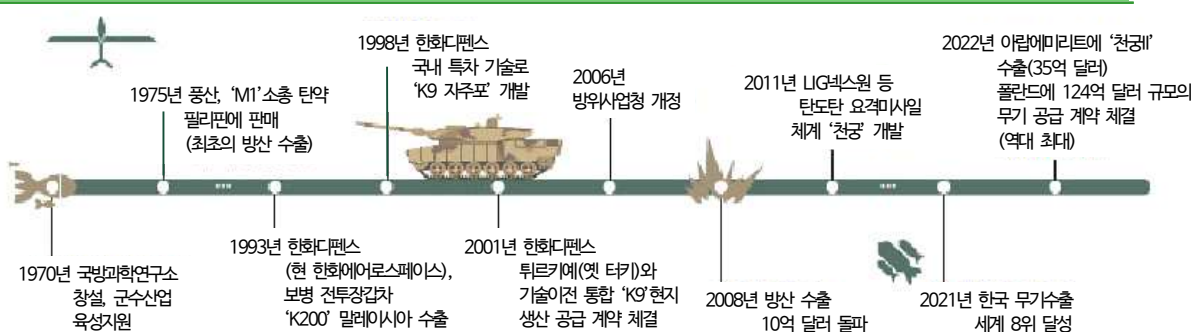
자료: 방산업체 인터뷰 종합(2023. 1); KIET(2014, 2018, 2020), '방산수출 10대 유망국가'를 기초로 산업연구원 재작성.

세계로 나가는 K 방산



K 무기수출의 역사

자료: 한국방위산업진흥회, 이코노미조선 정리



K-방산 경쟁력 포인트

- 1 우수한 성능 · 품질
- 2 합리적 가격
- 3 신속한 납기능력
- 4 안정적 군수 지원
- 5 기술이전, 산업 협력
- 6 북한 군사 위협 대응 경험 축적

자료: 산업연구원



지구의 나이는 몇 살인가?

지구의 나이에 대해 젊은 지구 지지자는 성경적으로 지구와 우주의 나이는 약 6,000년으로 오래된 지구 지지자는 세속적으로 지구의 나이는 약 45억 년, 우주의 나이 약 140억 년으로 본다. 그 차이는 엄청나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 기본 계산이 어디에서 왔는지 간략하게 살펴보자.

젊은 지구 세계관은 어디에서 왔는가?

성경(Bible)에서 온 것이다. 물론 성경 어디에도 “지구의 나이가 6천 년이다”라고 명시적으로 말하고 있지는 않다. 그렇게 명시해 놓았다면, 다음 해에 그 답은 만료가 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셨다. 본질적으로 그분은 우리에게 “출생증명서”를 주셨다. 예를 들어 개인 출생증명서를 사용하여, 사람은 언제든지 자신의 나이를 산출할 수 있다. 지구도 비슷하다. 창세기 1장은 창조의 첫째 날에 지구가 창조되었다고 말하고 있다(창세기 1:1-5). 거기에서 지구의 나이를 계산할 수 있다.

지구의 나이는 창조의 처음 5일(지구 창조부터 아담까지)에다가, 창세기 5장과 11장의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의 족보에 의한 시간과, 아브라함부터 오늘까지 흐른 시간을 더함으로써 추정해볼 수 있다.

아담은 6일째에 창조되었으므로, 그 앞으로 5일이 더 있었다. 마소라 히브리 사본을 사용하여 창세기 5장과 11장의 아담에서 아브라함까지의 날짜를 더해 보면 약 2,000년이 된다. 기독교인이든 세속인이든 대부분 학자는 아브라함이 BC 2,000년(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 전) 경에 살았다는 데 동의하고 있다. 따라서 간단한 계산은 다음과 같다.

$$5\text{일} + \sim 2,000\text{년} + \sim 4,000\text{년} = \sim 6,000\text{년}$$

지구의 나이에 대한 성경 밖의 계산

전 세계의 문화들에서도 지구의 역사를 추적했다. 성경적 관점에서 지구의 창조 연대는 수십억 년보다 젊은 연대와 더 가깝게 일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것은 모든 사람이 노아의 후손이고, 바벨탑에서 흩어졌기 때문이다. 또 다른 예상은 사람들이 전 세계로 흩어지면서, 영감받지 않은 기록이나 구전 역사를 지구의 다른 지역으로 가져가면서, 사람들 사이에 지구의 나이에 대해 약간의 불일치가 생겨났을 것이다. 역사학인 빌 쿠퍼는 그의 저서 ‘홍수 이후’에서 여러 고대 문화들로부터 흥미로운 창조 연대를 제공하고 있다. 첫 번째로 앵글로색슨 연대기에서 라우드와 파커 연대기에 따르면, 창조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5,200년의 역사를 가진다는 것이다. 또한 쿠퍼의 연구에 의하면, 고대 영국 역사에 대한 벤니우스의 기록은 창조에서 그리스도까지 5,228년이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마인들조차도 BC 3113년 대홍수가 있었다는 연대가 있었다. 많은 역사가의 이 세심한 작업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단지 수천 년이라는 그들의 연대는 약 6,000년이라는 성경적 연대를 잘 뒷받침하지만, 수십억 년은 아니다.

오래된 지구 세계관의 기원

1700년대 이전에 오래된 지구 나이를 믿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대략 6,000년이라는 지구의 나이는 비교적 최근인 18세기 후반에야 도전을 받았다. 성경 연대기를 반대하는 이들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그림에서 제외했다. 수백만 년이라는 개념은 아브라함 베르너, 제임스 허튼, 윌리엄 스미스, 조르주 퀴비에, 찰스 라이엘과 같은 사람들이, 지질학에 대한 해석으로 이러한 장구한 연대 개념을 사용했을 때 자리 잡았다. 베르너는 지구의 나이를 약 1백만 년으로 추정했다. 스미스와 퀴비에의 암석층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장구한 연대가 필요하다고 믿었다. 허튼은 지구의 시작에 대한 지질학적 증거를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성경적으로 생각하면, 창세기 6-8장에 나오는 전 지구적 홍수는 수억 수천만 년이라는 개념을 쓸어버릴 것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이러한 대홍수는 엄청난 양의 퇴적지층과 화석들을 설명할 것이기 때문이다. 대부분 기독교인은 전 지구적 홍수가 이전의 많은 암석층을 찢어버리고, 이전의 약한 것들을 파괴하여, 다른 곳에 재퇴적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 전 지구적 대홍수는 주장되는 수억 수천만 년의 증거들을 파괴해버릴 것이다. 따라서 암석 지층은 이론적으로 수억 수천만 년의 증거이든지, 전 지구적 홍수의 증거이든지, 둘 중의 하나이다. 이 둘을 같이 믿을 수는 없다. 슬프게도 1840년경 대부분의 교회들조차 세속적 지질학자들의 이러한 독단적인 주장을 받아들였고, 전 지구적 홍수와 성경적 지구의 나이를 거부했다.

20세기 초에 방사성동위원소 연대측정법이 발전하면서 지구의 나이는 급격하게 확장되었다. 1913년 아서는 그의 책 ‘지구의 나이’에서 16억 년의 지구 나이를 제시했다. 그 이후로 추정되는 지구의 나이는 약 45억 년(그리고 우주의 경우 약 140억 년)이라는 현재의 추정 나이로 확장되었다.

그러나 방사성동위원소 연대측정 방법이 전혀 신뢰할 수 없는 방법이라는 과학적 증거들이 증가하고 있다. 수억 수천만 년의 연대를 사실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성경에 꿰어맞추려고 애써온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증거들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밝혀지고 있는 방사성동위원소 연대측정 방법의 심각한 문제점들은 성경적 연대가 진실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 오늘날 세속적 지질학자들도 그들이 지층암석에서 보고 있는 것에 대한 설명으로, 일부 격변적 사건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동일과정설 사고는 여전히 널리 퍼져 있으며, 세속적 지질학자들은 노아 시대의 전 지구적 홍수와 같은 대격변적 사건을 절대 받아들이지 않는다.

지구의 나이에 대한 논쟁은 우리는 과거에 대한 인간의 불완전하고 변화하는 생각과 가정들을 신뢰할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창조, 노아 시대의 전 지구적 홍수, 지구의 나이를 포함하여, 과거에 대한 하나님의 완벽하고

정확하게 목격하신 증인의 기록을 신뢰할 것인가?

지구의 나이를 측정하기 위한 다른 동일과정설적 방법

방사성동위원소 연대측정은 지구의 역사를 수십억 년으로 믿게 만든 결정적인 요인이었다. 방사성동위원소 연대측정 방법이 기초하고 있는 가정들은

- 초기에는 모원소만 있었을 것이다.
- 붕괴 과정 중에 모원소나 자원소의 유입이 없었을 것이다.
- 붕괴 속도는 항상 일정했을 것이다.

만약 이러한 가정들이 정말로 맞다면, 동일한 사건에 대해 동일과정설적 추정 연대와 방사성동위원소 측정연대는 거의 일치해야 한다. 그러나 방사성동위원소 측정연대는 바다의 염류 유입, 지구 자기장의 붕괴 속도, 인구의 증가량과 같은, 다른 동일과정설적 연대추정 방법들에 따라 추정되는 연대와 종종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

방사성동위원소 연대측정 방법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것의 정확한 연대를 제공하지 못한다면, 그 방법으로 측정된 연대가 어떤 암석의 정확한 연대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단 말인가? 암석이 형성되었을 때, 그것을 기록해놓은 인간 관찰자가 없었는데 말이다. 그 연대측정 방법이 분출 시기가 알려진 암석에 대해서도 맞지 않는다면, 연대를 알 수 없는 암석에 대한 연대측정 결과를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는가? 이것은 매우 비합리적인 일인 것이다. 이에 비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역사를 완벽하게 아시며, 인간이 그 역사와 창조의 시기를 이해할 수 있도록, 성경에 충분한 정보를 계시해 놓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이지 않겠는가?

지구의 나이는 몇 살인가?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할 때, 이 세상은 약 6,000년 정도 되었다. 전 세계의 문화들에서도 성경적 지구의 나이가 제시되고 있다. 반면에 방사성동위원소 연대측정 방법에 의한 연대는 크게 오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지구의 나이는 궁극적으로 믿음의 문제로 귀결된다. 그것은 세계관의 문제이다. 당신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주제에 대해 말씀하신 것을 믿겠는가? 아니면 언제나 변하고 반복되는, 과거에 대한 불완전한 인간의 가정들과 상상을 믿겠는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이사야 66:1-2)



열방의 다이제스트

中, 시진핑 3연임 확정 후 기독교 박해 악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3연임 확정 이후 중국 내 종교 억압이 강도를 더하고 있다. 중국 당국은 기독교인을 ‘피해자 신고 없는’ 범죄 혐의로 체포하는가 하면 증거 조작을 위해 고문까지 가했다는 증언이 전해지고 있다.

기독교 박해감시기구 차이나에이드에 따르면 중국 쓰촨성 쑤이닝시 경찰이 기독교 여성 3명을 사기 혐의로 체포했다. 정확한 체포 사유는 밝혀지지 않았으나 해당 여성들에게는 은행에서 일했으며 기독교 단체의 기부금 입금과 송금을 도왔다는 공통점이 있다. 중국이 종교인에게 구금통지서를 보내는 경우는 처음이 아니다. 차이나에이드는 중국 전역에서 비슷한 일이 생기고 있다며 중국 내 기독교 박해를 우려했다. 중국 정부는 지난 3월에는 삼자교회 가입을 거부하며 공산당 통제를 받아들이지 않은 산시성 시안푹요의 교회를 폐쇄하고 성도 3명을 사기 혐의로 체포했다.

印, 인구 세계 1위 되다... 국제사회 대접 달라져

중국을 제치고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국가가 된 인도의 위상이 급부상하였다. 유엔은 최근 “인도 인구가 4월 말 기준으로 14억2577만5850명에 달해 중국 인구를 앞질렀다”고 밝혔다. 유엔인구기금에 따르면 인도의 출산율은 2.0명으로 중국의 1.2명과 미국의 1.6명보다 높다. 중국의 평균 연령은 39세이고, 미국의 평균 연령은 38세인데 인도는 평균 연령이 28세이며 25세 미만의 젊은 인구가 전체 인구의 40%를 차지하고 있어서 훨씬 젊은 인구는 앞으로 2024년에는 15억 명, 2064년에는 17억 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인구 숫자는 국토 면적, 군사력, 경제력 등과 더불어 한 나라의 국력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다. 유엔 관계자는 영국 BBC와의 인터뷰에서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국가라는 점이 인도에 하여금 더 많은 권리를 요구하게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 시도를 꼽았다. 현재 안보리 상임이사국은 미국·영국·중국·러시아·프랑스 5개국뿐이다. 인도는 오랫동안 상임이사국 확대를 요구해왔다.

러시아, 성전환 불법화 추진... 치료 목적 수술 제외

러시아가 성전환 수술을 금지하고 비수술 성전환자의 법적 등록을 거부하는 내용의 법안 도입을 추진한다. 일부 치료 목적의 수술을 제외하면 사실상 성전환을 완전 불법화하는 조처다. 예외적으로 “어린이의 선천성 생리 이상 치료와 관련된 경우”에 한해 의료적 개입이 허용되며, 국가가 해당 목록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은 또한 수술받지 않은 성전환의 국가 등록을 금지하는 등 비수술 성전환까지 불법화했다. 러시아는 최근 수년간 ‘가족 가치’에 대한 강경한 해석을 강조하는 크렘린과 러시아 정교회의 입장에 따라 LGBT(레즈비언·게이·양성애자·성전환자)에 비우호적인 분위기가 강화됐다. 지난해 우크라이나 침공 시작 이후 이 같은 상황은 더욱 두드러졌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을 ‘타락한’ 서방과의 실존적 전쟁이라고 주장한다. 지난해 10월에는 미성년자에 동성애 관련 정보를 제한하는 내용의 반(反)동성애법의 적용 범위와 대상을 대폭 확대하기도 했다.

北 주민 10명 중 1명, ‘현대판 노예’ 삶

후주 인권단체 워크프리재단은 ‘2023 세계노예지수’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북한의 ‘현대판 노예’ 숫자가 269만6000명으로 인구 1000명당 104.6명이라고 분석했다. 10명 중 1명 꼴이며, 이는 이 단체의 조사 대상 160개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다. 북한은 2018년에 발표된 직전 조사에서도 세계노예지수가 가장 높은 국가였다. 현대판 노예란 위협이나 폭력, 강압, 속임수 등으로 인해 착취 상황을

거부하지 못하는 이들을 의미한다. 강제노동과 강제 결혼, 성매매 강요, 아동 인신매매 등이 포함된다. 북한의 뒤를 이은 국가는 에리트레아로 인구 1000명당 90.3명이었고, 다음은 모리타니(32명)와 사우디아라비아(21.3명), 튀르키예(15.6명)가 불명예를 안았다. 한국은 1000명당 3.5명(명수로는 18만 명)으로 160개국 중 44번째로 낮았다. 이는 1.95명이었던 2018년 보고서보다 다소 증가한 수치다.

이직한 직장인 3명 중 1명 월급 줄어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일자리 이동통계’를 보면 재작년에 직장을 옮긴 임금근로자 219만 8000명 가운데 36.4%는 일자리를 바꾼 뒤 임금이 감소했다. 임금이 감소한 근로자는 60세 이상(44.6%)이 가장 높았다. 이어 50대(40.7%), 40대(36.9%), 30대(32.5%), 20대 이하(30.7%) 순이었다. 이동 전후 임금 감소 폭은 25만 원 미만(12.2%)이 가장 많고 이어 50만 원 이상~100만 원 미만(7.2%), 25만

원 이상 50만 원 미만(6.8%), 100만 원 이상 200만 원 미만(5.3%), 200만 원 이상(4.9%) 순이었다. 일자리를 옮긴 사람들의 종사상 지위를 보면, 임금근로자의 93.1%는 일자리를 옮긴 뒤에도 똑같은 임금 근로를 했다. 반면 자영업자 등 비임금근로 일자리에서 직업을 옮긴 사람 중 85%가 임금근로자로 이동했다.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들이 사업을 접고 취업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주민등록증, 이제 10년마다 갱신할 듯

행안부는 ‘국가신분증 운영 표준(안)’을 마련했다. 표준안 적용 대상은 주민등록증, 청소년증, 국가보훈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 7가지다. 신분증마다 운영 기준과 방식이 달라 각종 불편이 있었다. 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은 10년이지만, 주민등록증은 유효기간이 없어 신원 확인이 어려웠다. 이에 따라 주민등록증도 해외처럼 10년의 유효기간을 두기로 했다. 신분증 발급 신청 시 제출하는 사진도 여권용 사진(가로 3.5cm·세로

4.5cm)을 표준으로 맞춘다. 또 신분증에 기재되는 한글 성명의 최대 글자 수 제한도 사라질 예정이다. 앞으로는 모든 국가신분증에서 국민과 외국인의 성명이 온전하게 표기되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신분증에 기재되는 한글 성명의 최대 글자 수는 주민등록증 18자, 운전면허증 10자, 국가유공자증 14자 등으로 각기 다르게 제한되고 있다. 행안부는 6월 8일~28일까지 행정예고를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신분증 표준을 확정 및 시행할 예정이다.

인도에 불법 주·정차 누구나 신고 가능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 제도는 주민이 불법 주정차 차량의 사진 2장 이상을 1분 간격으로 촬영해 안전신문고 앱에 신고하면 관할 지자체가 자동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2019년 시행된 이후 신고 건수는 지속해서 증가해 지난해에만 약 343만 건에 달한다. 지금까지는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장 10m 이내,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

역 등 5대 주정차 금지 구역에만 시행했다. 인도에 불법 주정차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일부 지자체에서만 주민신고제를 운영해 왔으나, 7월부터는 모든 지자체에서 인도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주민신고를 받는다. 한 달간 제도기간 후 위반자에게 계고장을 발부하고 과태료 부과는 8월부터 이뤄진다. 또 지자체별로 1~30분으로 다르게 적용돼 온 불법 주·정차 신고 기준을 1분으로 일원화한다.

월드와이드 신문을 정기구독하세요

유익하고 좋은 소식을 전하는 월드와이드 신문이 정기구독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꾸준히 원하는 장소에서 월드와이드 신문을 받아 보고 싶으신 분은 월드와이드 신문 블로그(<http://blog.naver.com/wwpublish/>)에 방문하셔서 <정기구독>란에 비밀글로 주소를 남겨 주시길 바랍니다. 매월 신문이 발행되면 제일 먼저 무료 배송해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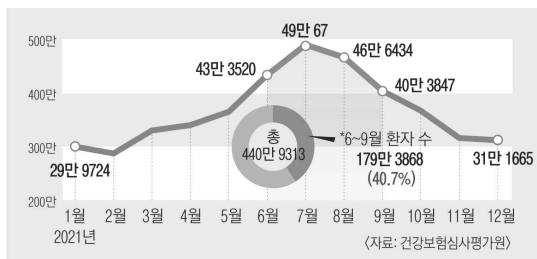
여름철 ‘습기’로부터 건강을 지키자

덥고 습한 여름철에는 세균과 곰팡이로 인한 질환이 유독 기승을 부린다. 무좀이나 습진 등 각종 피부질환에 걸리거나 증상이 더욱 악화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전염성 강한 불청객, 무좀

무좀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한 백선으로 국민건강 보험공단에 따르면 매년 200만 명 이상이 무좀으로 병원을 찾으며 이 중 7~8월에 환자가 집중돼 있다. 무좀은 피부사상균에 의해 발생하는 피부질환이다. 주로 발생하는 무좀은 ‘발 무좀’과 ‘손발톱 무좀’으로 전체의 약 80%를 차지한다.

■월별 무좀 환자 진료 추이 (단위명)



발 무좀은 가장 먼저 공기가 통하기 어려운 3, 4번 발가락 사이 그리고 4, 5번 발가락 사이이다. 특히 종일 구두를 신고 생활하는 사람은 여름철 땀이 나고 통풍이 되지 않는 가죽 소재 구두를 신고 발가락을 모은 채 있으면 무좀균에 감염되기 쉽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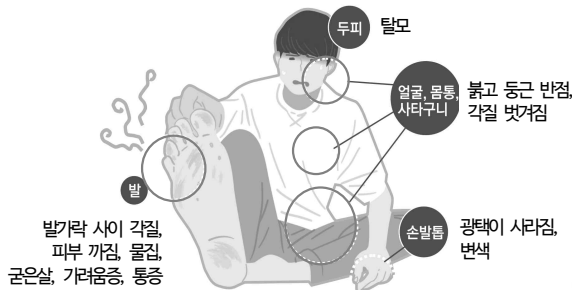
무좀에 걸렸을 때는 일반 비누의 사용을 자제하고 발 전용 샴푸를 사용해 발의 pH 밸런스가 깨지지 않게 보습을 해주면서 세정 해준다. 일반 비누는 알칼리성으로 피부를 더욱 건조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무좀에 걸린 발을 세정할 때는 따뜻한 물보다는 미지근한 물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물기가 발에 남아있지 않게 건조시킨 후 무좀 전용 로션을 발라준다. 발에 각질이나 굳은살이 있으면 그 사이에 무좀균들이 서식하기 때문에 각질 관리도 반드시 해준다. 손발톱 무좀의 대표적인 증상은 손발톱의 변형, 탈색, 분리, 각질화 등이다. 일반적으로 손발톱 색깔이

■발 무좀 별로 다른 치료법

	발가락 각질 벗겨지고 꼬릿한 냄새
	치료제: 항진균제
	양말 자주 갈아신고 수시로 통풍
	발바닥·발가락에 물집과 심한 가려움
	치료제: 항생제·항진균제
	항균 비누로 발 닦아서 청결 유지
	발바닥 딱딱해지고 심하면 피부 갈라짐
	치료제: 피부연화제 쓴 다음에 항진균제
	발 전용 로션 바르면 도움

흰색, 노란색 등으로 변하거나 표면이 거칠어지고 부서지기 시작했다면 무좀을 의심해본다.

■무좀이 발생하는 부위에 따른 증상



■무좀을 예방하려면

- 손발톱을 항상 깨끗하고 건조하게 관리한다.
- 손발을 씻고 나서는 손·발가락 사이를 잘 말린다.
- 통풍이 잘되는 신발을 신는다.
- 손톱깎이 등은 타인과 함께 사용하지 않는다.
- 목욕탕, 수영장 등 공용공간에서는 발 청결에 더욱 유의하고 되도록 가지 않는 게 좋다.
- 가정에서도 발수건, 슬리퍼, 욕실 매트 등은 각자 사용한다.

여름에 더 악화하는 습진

습진의 원인은 피부 장벽의 기능 장애로 신체의 기능이 약화 돼 내부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면 면역 과민 반응이 나타나게 되고, 이때 외부나 내부에서 자극 요인이 유발되면 습진이 발생한다.

여름철 높은 온도는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만들어 습진의 증상인 가려움증을 더욱 악화시킨다.

습진을 예방하려면 체내 열을 높이는 과도한 신체

활동이나 장시간의 목욕, 음주, 매운 음식 섭취 등은 가급적 자제하는 것이 좋다. 스키니, 타이트한 속옷, 레깅스 착용 등 통풍이 잘되지 않는 옷은 되도록 피하는 것이 좋다.

곰팡이, 치명적 질환 일으켜

가정에 생긴 곰팡이는 각종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 곰팡이가 폐로 들어가면 알레르기를 유발해 과민성 폐렴을 일으킨다. 고열, 기침 등의 증상으로 감기로 오인하지만, 방치하면 악화해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다. 아스페르길루스 곰팡이에 호흡기가 감염되면 아스페르길루스증에 걸릴 수도 있다. 이때 발열, 오한이 나타나다 심해지면 객혈과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여성은 습한 기후에 통풍이 잘 안되면 서 칸디다균 과증식으로 질염이 유발될 수도 있다.

■곰팡이 제거법

- 음식은 온도 10~15도, 습도 60% 이하인 곳에 보관해야 곰팡이가 생기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 싱크대에 곰팡이가 생겼다면 안 쓰는 치약을 발라 청소한다. 치약에 들어 있는 계면활성제, 연마제, 불소 등은 곰팡이 증식을 억제한다.
- 수건에서 냄새가 나거나, 색이 얼룩덜룩하다면 곰팡이가 생겼을 가능성이 크며, 이 수건으로 얼굴을 닦으면 접촉성 피부염이 생길 수 있다. 끓인 물에 과탄산소다 한 스푼을 넣고 잘 녹여준 뒤, 수건을 넣고 20분 후 손빨래한다.
- 벽지에 생긴 곰팡이는 알코올과 물을 1:4 비율로 섞어 곰팡이가 생긴 부분에 뿌린다. 곰팡이를 물티슈나 젖은 수건으로 닦으면 곰팡이 포자가 주변으로 옮겨 갈 수 있어 주의한다.



여름 감기 왜 독하고 오래갈까?

여름철 감기의 주원인으로 꼽히는 것은 바로 ‘온도차’이다. 에어컨, 선풍기 등 냉방으로 실내외 온도차와 햇볕이 뜨거운 낮과 바람이 선선한 밤의 일교차는 인체의 면역력을 약하게 만든다. 여름철 면역력 저하의 주범으로 ‘에어컨’을 꼽는 이유이다. 면역력이 약해지면 인체는 각종 바이러스 침입에 대한 방어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이것이 결국 여름 감기로 이어진다.

에어컨은 ‘습도’에도 영향을 끼쳐 차고 건조한 공기를 만드는 것도 문제이다. 차가운 공기가 먼지, 바이러스 등 외부물질들을 걸러주고, 침입을 막아주는 ‘코 점막’을 마르게 해 그 기능을 떨어뜨리기 때문이다. 최근 유행하는 휴대용 선풍기를 얼굴 가까이 쬐는 것도 호흡기 점막에 직접 작용하여 마르게 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여름 감기 바이러스는 땀속에서 서식하는 경우가 많고 이런 바이러스들은 배출되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 이러한 바이러스들은 콧물, 식욕부진, 미열, 기침, 목 통증 등 호흡기 증상 등을 보이며 더 심해질 경우 여름 감기 특징인 구토, 설사, 고열, 몸살 등을 동반한다. 파라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은 소아 후두염(크룹)의 가장 흔한 원인이며, 성인에서는 기침, 쉼 목소리 등의 증상으로 나타난다. 여름 감기는 추운 공기로 인한 것보다 면역력이 떨어져 걸리는 것이기 때문에 여름처럼 더운 날은 실내 실외 이동시 급격한 온도 변화로 몸에 면역력이 떨어져 바이러스에 쉽게 노출되게 하고 치료를 더디게 한다.

여름 감기 기운이 있으면 먼저 온도와 습도를 잘 관리하고, 무리하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



일어나라! 단기선교 코리아여

팬데믹으로 닫혔던 해외 선교의 문이 다시 열리고 있다. 한국교회는 여름 해외 선교 사역을 재개하며 사역 준비에 한창이다. 코로나 이후 많은 변화를 겪은 선교지의 상황을 잘 살펴 효과적인 단기선교 사역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코로나 이후 선교지 상황

코로나 팬데믹 이후 선교 현지는 커다란 도전에 직면해 있다. 3년 동안이나 중장기화되는 코로나 사태가 모든 것을 변화시켰다.

현지 주민의 경제침과 현지 주민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현지인의 신앙의식도 약해졌다. 따라서 처음 시작할 때처럼 현지인을 교육하고, 신앙을 세우기 위한 노력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 단기선교는 한국교회의 선교 열정을 유지 강화시키고, 현지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면서 선교 현지와 소통과 협력, 지원을 지속하던 원동력이었다. 그러나 코로나 팬데믹 이후 현지 국가의 비자 제한과 까다로운 입국조건으로 과거와 같이 자유롭게 다니지 못하게 되었다. 이 때문에 현지 선교지역과의 원활한 협조와 지원이 여의치 않게 되었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선교현장이 지게 되었다.

선교지가 아직 완전하게 코로나의 여파로부터 복구되지 않은 곳도 있다. 코로나 기간 국가적 봉쇄로 인해 외국인에 대한 경계가 더 심해졌고, 선부른 행동이나 준비되지 않은 사역으로 인해 현장에서 잘못된 오해로 인식될 수 있기에 이에 대한 각별한 준비가 필요하다. 선교지에도 많은 SNS시스템이 확장되어 있기에 선부르게 진행하다가 실수를 한다든지 현지에 거부감을 주는 행동들은 여과 없이 SNS를 통해 일파만파로 확산이 될 것이다. 글로벌 SNS에도 노출돼 한국선교에 대한 오해를 쌓을 수 있는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단기선교를 통해 개인의 변화가 일어나는 이유

단기선교 현장에서는 우리의 일상과의 분리를 경험한다. 매일의 삶에서 벗어나면서 자연스럽게 변화에 대한 준비를 하게 된다. 일상적인 생활패턴을 벗어나게 됨을 통해서 달라지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며 익숙한 것에서 벗어나서 집중해야 할 것에 집중한다.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된다.

또한 단기선교는 새로운 만남이 있는 자리이다. 사람은 다른 사람과의 만남을 통하여 큰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다른 사람들과의 만남은 사람의 삶을 바꾸는 힘을 가지고 있다. 누구를 만나는가, 누구와 함께 하는가가 중요한 것이다.

단기선교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참여하는 사람이 변화에 대한 기대를 하고 가기 때문이다. 해외단기선교에서의 변화가 더 큰 이유이다. 큰 비용과 시간을 소요하면서 가기 때문에 변화에 대한 기대가 크고 그러한 자극에 대한 반응이 적극적이다. 자신의 일상과 차이가 많이 있을수록 더 큰 변화의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다.

단기선교 떠나기 전, 이것만 기억하자

첫째, 단기선교여행의 목적을 분명히 한다. 현장 탐사인지, 선교사를 돕기 위한 것인지, 공동체 훈련이

목적인지, 직접 사역을 진행할 것인지 등 목적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 단기선교 여행에 혼선이 생긴다. 둘째, 현지교회나 현장선교사와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 선교는 우리의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현지의 교회를 돕는 일이기 때문이다.

셋째, 보여주는 프로그램보다 '선교'를 준비해야 한다. 선교는 단순히 멀리 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문화권에 가는 것이다. 따라서 타문화를 어떻게 이해하고 용납하고 사랑할 것인가에 대해 깊이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

넷째, 짧은 방문이지만 긴 효과를 남겨야 한다. 일회성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구호 물품을 나눠주기만 하는 사역은 단기선교여행 팀이 돌아가고 나면 금세 잊힌다. 사람에게 집중해 선교지에 장기적인 영향력을 끼치도록 노력한다.

다섯째, 배우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무엇인가를 가르치고 큰 변화를 일으켜야 한다는 생각은 위험하다. 서로 배우고 나누는 과정 속에 관계가 깊어진다.

여섯째, 평가회는 현장에서 실시한다. 한국에 돌아온 후 평가회를 하면 모든 인원이 모이기 힘들고 현장의 생생한 느낌을 놓치기 쉽다. 단기선교 일정 중 마지막 날에 시간을 마련해 평가회를 하고 돌아오는 것이 좋다.

일곱째, 위기상황 대처 훈련이 필요하다. 선교지에서는 어떤 돌발 상황이 변수가 발생할지 모른다.

마지막으로 선교여행 이후를 미리 준비한다. 선교여행 가기 전 기도회도 중요하지만 다녀온 후 기도회가 더 중요하다. 그래야 선교지에서의 경험, 만남, 필요 등을 기억하고 선교적 삶에 동참할 수 있다.

단기선교를 가야 하는 이유

- 1) 선교 경험을 통해 추수할 것은 많으나 일꾼이 없어 안타까워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된다.
- 2) 다른 단기선교로, 혹은 자비량으로, 혹은 전임 사역자로 헌신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해 준다.
- 3) 주변 사람들의 필요에 더욱 민감해지고 자신의 문화를 더 잘 이해하게 한다.
- 4) 선교 현장 경험과 장기 선교사들과 좋은 만남의 시간이 제공되며 실제로 사역을 돕게 된다.
- 5) 선교에 대한 새로운 열정이 생기고 새로운 형태의 영적인 표현들을 수용하게 한다.
- 6)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인도하심을 체험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
- 7) 당신이 속한 공동체가 선교의 비전을 갖도록 돕는다.
- 8) 예비 된 장기 선교사의 효과적인 발굴이 가능해진다(빌립의 예).
- 9) 한 영혼을 구원해 여기고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
- 10) 지속적으로 선교에 참여하는 후원자나 동역자가 될 수 있다.
- 11) 타 문화와 타 민족에 대한 이해와 용납을 배우게 된다.

■ 교계 소식 ■

美 텍사스 주지사, 미성년 성전환 수술 금지법 서명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9월 1일부터 발효되는 상원법안 14호(SB 14)는 사춘기 차단제, 성전환 호르몬 및 남성으로 식별하는 여성 미성년자의 이중 유방 절제술과 같은 의료적 개입을 금지한다. 또한, 이러한 미성년자 시술에 대한 주정부 기금 사용을 차단한다. 이 법률은 "어린이의 성기, 염색체 및 내분비 프로필에 의해 결정된 생물학적 성별을 전환하거나, 어린이의 성별 인식이 생물학적 성별과 불일치할 경우, 이를 확인할 목적으로 하는 절차를 금지한다"고 규정한다. 법안은 5월

텍사스 주의회를 통과하여, 텍사스 주지사의 서명을 받았다. 이로써 미국 전역의 최소 17개 주가 미성년자 성전환 수술 금지법을 제정했으며, 현재까지 다른 26개 주에서 유사한 법안이 제출되었다. 미성년자의 성전환을 금지한 주로는 앨라배마, 애리조나, 아칸소, 플로리다, 아이다호, 아이오와, 인디애나, 켄터키, 미시시피, 몬태나, 네브래스카, 노스다코타, 오클라호마, 사우스다코타, 테네시, 텍사스, 유타이며, 그중 텍사스는 3천만 명의 인구를 가진 가장 큰 주이다.



복음은 영어로 Good News입니다. 곧 복된 소식입니다. 복음은 아담 이후로 이 세상에서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가장 복된 소식입니다. 바울 사도는 복음에 대하여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선포합니다.

로마서 1:16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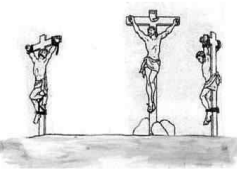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첫 사람 아담은 자신이 가장 행복할 수 있는 길인 참 생명의 하나님을 버리고, 대신 마귀의 미혹을 받아 자기 욕망에 이끌려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그로 인해 세상에 죄가 들어와, 모든 사람이 그(죄)의 길을 따라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2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죄란, 나를 지으시고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버리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 세상의 자랑을 좇아 오로지 자기만을 위해 사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결국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무서운 심판과 영원한 사망을 낳게 합니다.

3



사랑의 하나님은 사람들이 지은 그 무지한 죄를 속량해 주시기 위해,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 주심으로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내어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로 계획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죄의 삯인 죽음의 형벌을 우리 대신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또한 그분은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시기 위해, 그 죽음에서 먼저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4



사람이 자기 뜻대로 세상에 태어날 수 없는 것처럼, 죽음 후에도 자기 뜻대로 부활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는 육신의 부모에 의해서 태어나듯이, 죽음 후에는 영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에 의해 영원한 생명이 주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 죄를 위해, 자신을 버리신 단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시어, 영원한 생명과 참 평안을 얻기 바랍니다.

1			3		10			12	
							13		
2	2				10	11		14	13
	4		4			11		14	
			5		5				
	9				9			15	15
7		8		6					
						16	16		
		8					17		

가로문제

1. 말고 있던 직책이나 직위에서 물러남
2. 비단에 수를 놓은 듯 매우 아름다운 산천
3. 경매나 경쟁 입찰 따위에서 물건이나 일이 어떤 사람이나 단체에 돌아가도록 결정된 가격
4. 전동기의 회전축에 날개를 붙이고 이를 돌려 바람을 일으키는 기계
5. 사람의 출입이 잦은 건물의 출입구에 보온을 위해 설치한, 축을 중심으로 빙빙 돌려서 드나들게 만든 문
6. 오래도록 친하게 사귀어 온 사람
7. 조용한 가운데 어떠한 움직임이 있음
8. 사람이 있음을 알 수 있게 하는 소리나 기색
9. 이리저리 정처 없이 헤매며 다님
10. 인재를 골라 뽑아서 씀

11. 쇠주먹으로 다스린다는 뜻으로, 폭력으로 국민을 억눌러 다스림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12. 남에게 빛을 줌
13. 발전기나 전동기, 증기 기관, 내연 기관 따위의 발동이 걸리기 시작함
14. 보리가 익어서 거둬들 만하게 된 때
15. 인류를 고통과 죄악과 죽음에서 구하는 일
16. 일이나 유람을 목적으로 다른 고장이나 외국에 가는 일
17. 운동할 때 입는 옷

세로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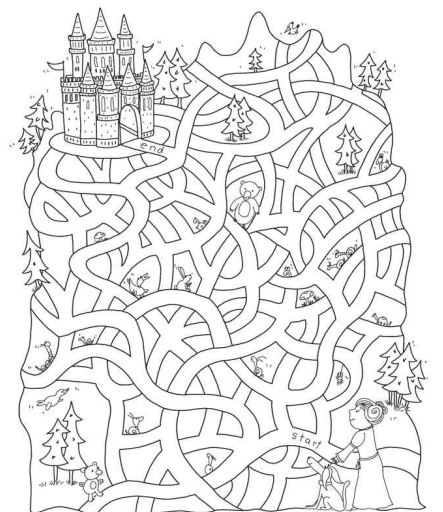
1. 직업이나 맡은 일 따위에서 물러나는 사람에게 근무처에서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돈
2. 하늘과 바다가 멀리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선
3. 비행 중인 항공기 따위에서 사람이나 물건을 안전하게 땅 위에 내리도록 하는 데 쓰는 기구
4. 어떠한 일이나 행동을 하기에 가장 좋은 때나 경우
5. 글을 쓰거나 사무를 보는 데 필요한 도구를 파는 가게
6. 혈연 및 혼인을 통하여 이루어진 친족을 통틀어 이르는 말
7. 머리 위의 솟구멍이 있는 자리
8. 한집에서 같이 사는 사람
9. 아랫사람의 잘못을 꾸짖는 말
10. 밤거리를 밝히기 위해서 설치한 조명 시설
11.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탄력이 있는 나선형의 쇠줄
12. 동일한 혈관의 좌측과 우측 순환에서 맥박의 강도가 다르게 나타나는 맥박
13. 미루어 생각하여 헤아린 값이나 양
14. 바람이나 공기가 드나드는 구멍

15. 마음과 몸의 활동력을 원래의 상태로 돌이키거나 되찾음
16. 좋은 운수. 또는 행복한 운수

<지난 6월호 정답입니다>

전	도			저	수	지			
시			출	장		폐	기	물	
회	초	리		고	비			가	장
		더			상	처			본
점		심	중	팔	구		간	병	인
조			양			기	척		
직	사	광	선		중		지	하	철
	이			건	강				거
	비	판		망		혹	세	무	민
		결	벽	증		평			

미로찾기



북한 복음화, 예배의 기름부음, 열방을 향한 뜨거운 선교비전, 차세대 리더십양육과 이 땅의 문화변혁의 리더십을 꿈꾸는 교회



월드와이드교회는 건강한 교단인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서울노회 소속입니다



행복의 문을 여는
월드와이드 교회

블레싱 전도축제 ■ 5월 14일

“행복에로의 설레임”



2023 상반기 세이레기도회 ■ 5월 22일~6월 10일

“생명의 강에 삶을 던져라”



박인용 담임목사



한태양 대표-간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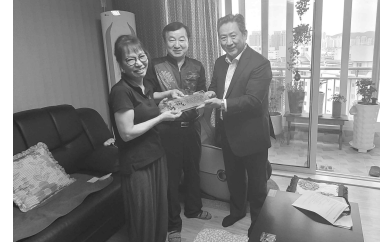
축복기도-부평목장



로버인내-1,2부 안내팀



삼산1목장 리더십모임



부평목장-김지형/양명자



차세대 다드림예배



유년부



초등부



고등부 전도축제

“코로나의 멍울 가운데 나의 삶을 어루만져 주님의 손길!”

2년 반 동안 나의 믿음의 여정에 장애물로 다가온 ‘코로나 팬데믹’은 가정과 직장, 교회 공동체에 어수선한 분위기와 두려움, 염려로 먼저 마음을 위축시키고 삶을 소극적으로 만드는 과정이었다.

나는 불신의 가정에서 주님을 만났고 돌아보면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많았다. 그럴 때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교회 중심의 신앙으로 순간마다 어려운 시간들을 이겨 나왔다. 늘 어떤 크고 작은 시련이 닥쳐올 때 나의 신앙생활은 기본으로 돌아가는 삶이었다. 즉 주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기도와 말씀, 예배로 나아가며, 문제의 현상을 뒤로하고 주님의 도우심의 손길 안에 평안과 확신을 갖는 생활이었다.

이번에도 공 예배 및 새벽기도에서 주님의 뜻과 계획이 어디에 있는지

더욱 마음으로 묵상하며 기도의 시간을 늘리면서 오히려 신앙 성장의 기회로 삼는 계기가 되도록 애쓰게 되었다.

코로나 기간에 신앙생활 초기에 봉사했던 경험을 살려서 성가대에서 꾸준히 찬양으로 섬기게 되었다. 여러 사역과 겹치면서 그만두려고 여러 번 생각 했지만, 찬양은 마음에 평안과 담대함을 주고 나의 영혼이 소생되는 것을 순간마다 경험하게 하였다. 그리고 남성중보 기도팀을 구성하여 적은 인원이지만 주일 아침에 함께 모여 개인기도 제목과 교회 사역, 예배와 담임목사님 말씀에 기쁨 부음, 성도님들 특히 연약한 환우들을 위한 중보기도에 집중함으로 우리 중보기도팀과 교회공동체에 기도와 믿음의 불씨가 되기를 꾸준히 계속 기도하였다.

직장생활에서도 자투리 시간을 이용하여 신앙서적과 찬양 듣기로 순간마다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얻는 시간을 보내게 되었다.

가정에서는 가장으로, 회사에서 관리자로, 교회 공동체에서 리더로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코로나 기간 동안 더욱 긴장의 연속이었다. 작은 생활 습관에서 자신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자세가 필요하여 규칙적인 위생관리, 기상과 동시에 스트레칭, 퇴근 후에 산책과 걷기운동은 어려움을 이겨내는 기본 바탕이 되었다. 그리고 특히 감사한 부분을 늦은 나이에 기타 배우기 초보의 길에 과감히 도전하여 찬송가 연습에 열심히 할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고 있다. 그래서 그런지 주님의 은혜로 코로나 기간 동안 나는 병원에 한번 가지 않고 감



부개목장
김강균 장로

염 없이 이길 수 있었고 가족들도 큰 어려움 없이 건강을 유지하게 되었다.

나의 믿음의 여정에 주님이 계신 본향을 사모하면서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과정에 늘 설레임과 기쁨이 샘솟듯 다가오게 된다.

“거기서 살 준비가 안된 사람은 여기서도 제대로 못산다.”라는 말을 읽은 적이 있다. 천국을 소망하라. 그래야 이 땅의 삶도 잘 살 수 있고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음을 확신해 본다.

전도의 새봄을 열어주는 월드와이드 신문을 소개합니다

경제, 연예, 문화, 창조과학, 교육, 의학, 역사, 건강, 성공학에 이르기까지 사회적인 이슈를 선별하여 다양하고 유익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 담임 목사님의 메시지를 실으실 수 있습니다. (3면) 매월, 교회 주변의 지역 주민들에게 자연스럽게 대화의 문을 여는

창구의 역할이 됩니다.

• 성도님들이 언제든지 손쉽게 들고나가 길거리 전도를 하실 수 있습니다. 알찬 내용 자체가 유익을 주기 때문에 선물처럼 전달하실 수 있습니다.

• 편집, 발행, 배달까지 담당해 드리므로

편집부나 출판부가 없는 중·소 교회의 경우 더 큰 유익이 있습니다.

• 매월 최소 3천부에서 2만부까지 다양한 분량을 주문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 및 문의
032-501-9686

월드와이드신문과 함께하세요

신문이 필요한 분은 10부, 20부, 50부, 100부씩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신문대금은 받지 않으며 원하시면 후원계좌로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후원계좌: 100-021-800947 신한은행
(예금주: 월드와이드교회)

박인용 담임목사 주일설교 안내

• www.wwch.or.kr

•라디오 극동방송 Fm106.9

•GOODTV(매주 목요일 오전 5시,
매주 토요일 오전 5시 50분)

•C3TV 인터넷 방송

•C3TV 모바일방송 KTF**91-302n

•스카이라이프채널 Ch414

월드와이드교회 예배시간안내

	부서	시간	장소
새벽	월~금	오전 5:10	지하1층 본당
	토	오전 6:00	지하1층 본당
주일	1부	오전 9:00	지하1층 본당
	2부	오전 11:15	지하1층 본당
	3부	오후 2:00	지하1층 본당
	4부(청년예배)	오후 4:00	지하1층 본당
주중	화요중보예배	오전 10:15	지하1층 본당
	수요저녁예배	오후 8:00	지하1층 본당
	목요심야기도회	오후 8:00	지하1층 본당
주일 랜드	영아부(해피랜드 1~4세)	오전 11:30	2층 해피랜드홀
	유치부(판타지랜드 5~7세)	오전 11:30	2층 판타지랜드
	유년부(드림랜드 1~3학년)	오전 11:20	3층 드림랜드홀
	초등부(조이랜드 4~6학년)	오전 11:20	3층 조이랜드홀
	중등부	오전 11:00	지하2층 블루오션홀
국제 사역	고등부	오전 9:00	지하2층 블루오션홀
	영어예배	오후 2:30	지하2층 블루오션홀
	미얀마예배	오후 3:30	지하2층 블루오션홀
	카렌족예배	오후 1:00	지하2층 블루오션홀

월드와이드교회 오시는 길



축복의 불루오션
월드와이드교회
대한예수교장로회 Worldwide Community Church

•주소: (우) 21343/ 인천광역시 부평구 삼산동 458-3 도로명) 인천 부평구 삼산동체육관로 82
•전화: 032) 501-9686~7
•Fax: 032) 503-9686
•http://www.wwch.or.kr

2023 '주님의 영웅' Revival Hero

Rise up Priests

일어나라!

제사장 나라여

7.14(금)-15(토) 치악산 명성수양관

대상 : 청년대학부, 부흥을 꿈꾸는 모든성도

회비 : 65,000원 (6월30일 까지 등록시 60,000원)

숙식제공, 계좌번호 신한은행:100-023-758653(예금주:월드와이드교회)

Schedule

	14일(금)	15일(토)
06:00-07:00		개인묵상
07:00-08:00		아침식사
08:00-09:00		Revival Hero 찬양팀
09:00-10:00		김언약 선교사 - 미래세대여 제사장 나라로 부흥하라
10:00-11:00		휴식
11:00-12:00		정신실 소장 - 아름다운 제사장, 그 잃어버린 한 가지
12:00-13:00		점심식사
13:10-14:00	등록 및 접수 Revival Hero 찬양팀	Revival Hero 찬양팀
14:00-15:00	이재진 선교사 - 제사장 나라가 되라!	길원평 교수 - 공의의 제사장 나라를 세워야 산다
15:00-16:00		파송 - 김명림 목사 - 큰나라 백성
16:00-17:00	휴식	to the world~!
17:00-18:00	함부영 - 찬양콘서트	
18:00-19:00	저녁 식사	
19:00-20:00	Revival Hero 찬양팀	
20:00-21:00	박인용 목사 - 일어나라 제사장 나라야	
21:00-22:00		
22:00-23:00	폭풍 기도회	

Speaker



박인용 목사
(월드와이드미션대표)
(전) 명지대 교수 및 교목
[지성소기도] 저자



이재진 선교사
에클레시아선교회 대표,
SWM KOREA 대표



함부영 사역자
전) 마커스워십 예배 인도자
CCM 보컬리스트
백석예대 교회실용음악과 외래교수



김언약 선교사
이스라엘선교사
현)미래세대 선교회 대표
현)KWMA 다음세대
영역 위원회 코디
미래세대 선교 동원
교육 사역
카이스트 미래 전략
대학원 졸업(M.S)



정신실 소장
현)정신실마음성장연구소 소장
음악심리치료와 영성심리 전공
저서 <연애의 태도>
<커피 한 잔과 함께 하는 에니어그램>
<신앙 사춘기> 등



길원평 교수
현)부산대학교 명예교수
현)수도권기독교
총연합회 전문위원

문의 : 권세빈:010-8245-5430 월드와이드교회 032-501-9686
담당교역자: 김명림 목사 (010-8508-7375)



월드와이드미션